

베르다예프와 러시아 혁명*

김민아**

[초 록]

20세기 러시아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N. A. 베르다예프가 활동한 러시아의 20세기 초는 예술, 문화, 사상이 꽃 핀 ‘은세기’이자 동시에 사회, 정치적으로 가장 역동적이면서 혼란스러웠던 ‘혁명의 시기’였다. 한때 마르크스주의자였다가 마르크스주의와 유물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강력한 비판자로 전향한 베르다예프에게 1905년의 혁명과 1917년의 볼셰비키 혁명은 러시아의 운명, 러시아의 이념과 함께 그의 사유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 베르다예프는 자신의 철학의 핵심 개념인 인격, 자유, 정신을 가지고 러시아 혁명을 비판한다.

인격과 자유에 대한 테마는 전 생애동안 내가 몰두한 테마로 남게 되었다.¹⁾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상명대학교 글로벌인문학부대학 강사

주제어: 베르다예프, 러시아 혁명, 인격, 정신, 자유
Berdyaev, Russian Revolution, Personality, Spirit, Freedom

1) H. Бердяев (2001), *Самопознание. Русская идея*, М.: ЭКСМО, 2002, p. 171.

1. 서론

전 세계적인 대격변의 시기로 평가되는 20세기의 역사는 러시아를 빼 놓고는 이해할 수 없다. “요컨대 20세기의 역사는 러시아 혁명과 그것의 직접적, 간접적 결과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²⁾는 에릭 홉스봄의 언급은 1917년 10월의 볼셰비키 혁명이 그 이후의 세계사에 직접적으로 미친 커다란 파급력을 지적하는 것이다. 홉스봄에 의하면 “1980년대 말에 산산조각난 세계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영향에 의해서 형성된 세계”로 “우리 모두가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았다”.³⁾ 그가 20세기의 역사를 다룰 때 그 시기를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1914년부터 소련이 해체된 1991년까지 다루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이다. 특히 제국주의의 몰락과 러시아 혁명, 양차대전으로 얼룩진 20세기 전반기는 그야말로 ‘파국의 시대’였다.⁴⁾

제정 말기인 1874년 러시아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1922년 소비에트 정부에 의해 강제추방당한 후 1948년 망명지 파리에서 사망한 러시아의 철학자 니콜라이 베르다예프는 고국 러시아와 유럽에서 이 파국의 시대를 오롯이 살아내었다. 사후 1년 뒤인 1949년에 출판된, 일종의 ‘철학적 자서전’이라 할 수 있는 『자기인식』에서 베르다예프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⁵⁾

2) 에릭 홉스봄(1997), 『극단의 시대: 20세기의 역사(상)』, 이용우 옮김, 서울: 까치, p. 123.

3) 에릭 홉스봄(1997), p. 17.

4) ‘파국의 시대’라는 용어는 1차 대전의 발발에서부터 2차 대전의 종전 직후까지의 시대를 일컫는 홉스봄의 용어이다. 홉스봄은 2차 대전 종전 이후부터 1970년대 초까지의 시대를 엄청난 경제성장과 사회적 변화가 잇따른 ‘황금시대’로, 나머지 20세기의 마지막 시대를 해체, 불확실성, 위기의 ‘새로운 시대’로 이해한다(에릭 홉스봄(1997), p. 19).

5) 베르다예프는 『자기인식』(Самопознание)의 서문에서 자신의 책이 ‘회상’이나 연대기적 순서로 생애의 사건들을 기술하는 ‘자서전’이 아니라고 못 박는다. 그에 의하면

“나는 내 조국과 전 세계의 파국의 시대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역사는 인간의 인격에 자비를 베풀지도, 심지어 관심을 가지지도 않는다.** 나는 세 번의 전쟁을 겪었는데 그것들 중 두 개는 세계 대전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었다. 러시아에서는 두 번의 혁명, 작은 혁명과 큰 혁명을 겪었고 20세기 초에는 정신의 갱생을 경험했으며 그 후에는 러시아 공산주의, 세계 문화의 위기, 독일에서의 변혁, 프랑스의 붕괴와 승리자들에 의한 그것의 점령을 체험했다. 나는 추방을 겪었고 나의 추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⁶⁾ (향후 본문 및 각주에서의 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임)

베르다예프가 겪은 세 번의 전쟁 중에는 제1, 2차 세계대전이 포함된다. 나머지 하나는 1904-1905년의 러일 전쟁일 수도 있고 혹은 볼셰비키 혁명 이후 백군과 적군 사이의 내전일 수도 있을 것이다(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 세 전쟁과 ‘피의 일요일’ 사건을 발단으로 발생한 1905년의 혁명, 그리고 1917년 10월에 일어난 볼셰비키 혁명, 두 혁명을 겪고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가 된 조국에서 추방되기 전까지 대략 5년 동안 소비에트 체제를 경험하였으며 망명 후 정착한 파리가 2차 세계 대전 시 나치 독일에 의해 점령되는 것을 목도한 베르다예프의 개인사는 러시아사, 나아가 세계사와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베르다예프가 살아간 20세기 전반기는 그 스스로가 말하듯이 “전 세계의 파국의 시대”였고 이러한 ‘파국의 시대’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개인은 미약한 존재일 뿐이었다. 그러나 사상가, 철학자로서 베르다예프는 시대의 사건들에 매몰되거나 침묵하지 않고 이 사건들을 해석하는 가운데 자신의 위치, 방향

과거의 삶에 대해서 현재 기억하는 행위는 현재의 나에 의한 ‘창조적인 인식’의 행위이다. 책의 내용이 허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삶에 대한 철학적 인식과 사유”이기 때문에 베르다예프는 책을 ‘철학적 자서전’으로 지칭한다. ‘자기인식’(самопознание)이라는 책의 제목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Н. Бердяев (2001), p. 36).

6) Н. Бердяев (2001), p. 37.

을 결정지었다.⁷⁾ 그에게 러시아의 역사, 세계의 역사는 개인의 역사, 개인의 운명과 얽혀 있었기에(“나는 러시아 혁명을 외부에서 내게 강제된 것이 아닌, 내 운명의 한 시기로 경험하였다”) 역사(그리고 역사적 사건)를 이해하려는 그의 시도는 곧 역사 속 인간 개인(자기 자신)의 운명을 이해하려는 시도로 읽힌다.⁸⁾ 본 논문에서는 20세기의 세계를 뒤흔들었을 뿐 아니라 베르다예프 개인의 삶과 그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친 러시아 혁명에 대한 베르다예프의 사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베르다예프와 러시아 혁명

2.1. 베르다예프의 혁명성

베르다예프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끊임없는 반란,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사회, 문명이 거짓과 악에 기초하고 있음을 일찍 인식하였고 현실의 위계에 적대적이었던 베르다예프에게 ‘혁명’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니라 그의 본성에 내재한 것이었다.

현재의 야수와 같은 세계의 시기에서 이미 자라난 나의 혁명성은 복잡한 현상으로, 러시아의 혁명적 인텔리겐치아의 대다수와는 다른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본성 속에 있는 혁명성은 무엇보다도 **정신적 혁명성(революционность духовная)**, **정신의 반란(восстание духа)**, 즉 **노예상태와 세계의 무의미함에 반대하는 자**

7) 베르다예프가 마르크스주의, 관념론, 신비주의적 기독교의 믿음들을 선택하는 것이 그의 역사 이해의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Marina S. Kiseleva (2015), “Understanding History: The Decisions of Nikolai Berdyaev,” *Russian Studies in Philosophy*, vol. 53, no. 4, pp. 305-323.

8) Н. Бердяев (2001), p. 209.

유와 의미의 반란이다. 본질상 나는 정치적 혁명가가 거의 아니고, 우리의 정치 혁명들에도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다. 심지어 내 안에서는 그 혁명들에 대한 정신의 혁명적 반란(революционное восстание духа)마저 존재했다. 때로 **이 혁명들은 정신적으로 반동적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그 속에 있는 자유에 대한 중요, 인격의 가치에 대한 부정을 규탄하였다. 내 안에는 이중성이 있는데 이는 혁명성과 여전히 보존되어 있는 귀족적인 본능들이었다. (...) 나의 혁명성의 근원을 나는 세계 질서를 처음부터 수용할 수 없는 것,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에도 복종할 수 없는 것에서 항상 보았다. 여기서 이미 보이듯이 이 혁명성은 사회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것으로 인민 대중의 반란이 아닌 **인격의 반란(восстание личности)**이다.⁹⁾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베르다예프의 혁명성은 시대와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시대가 그의 내재된 혁명성을 더욱 키웠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베르다예프는 자신의 혁명성을 러시아 인텔리겐치아의 정치, 사회적 혁명성과 구분하여 ‘정신적 혁명성’, ‘정신의 반란’, ‘인격의 반란’이라 지칭한다. 정신적 혁명성, 정신의 혁명이라는 용어는 베르다예프가 러시아 혁명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내놓는 혁명이다. 베르다예프의 정신적 혁명, 정신/인격의 반란은 앞서 지적했듯이 평생에 걸친 것으로 이때 무엇에 맞선 혁명, 반란인가란 질문이 제기된다.

첫 봉기는 자신이 속한 귀족 사회와 상류 사회에 대한 반감이었다.¹⁰⁾ 1874년 키예프의 유서깊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베르다예프는 귀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귀족 사회와 상류 사회에 뿌리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스스로 고백한다. 즉 소년시절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존재하는 “인격주의적 무정부주의 경향”(персоналистически-анархическая тенденция)은 모든 위계, 서열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신

9) Н. Бердяев (2001), pp. 151-152.

10) Н. Бердяев (2001), p. 153.

성한 것은 사회도, 국가도, 민족도 아닌 인간이다”¹¹⁾).

내재된 혁명성은 1894년 대학에서 마르크스주의 서클과 만나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어 사회 민주주의 모임에 참석하면서 본격적으로 외재화된다. 그 결과 1898년 대학에서 제적당하고 한 달 동안 투옥되었다가 1901-1902년에는 볼로그다, 쥐토미르에서 유형생활을 하였는데 유형 중에 러시아 반정부 운동의 다양한 지부 대표자들(А. 루나차르스키, Б. 사빈코프, Б. 키스타콥스키, А. 보그다노프)을 만난다.¹²⁾ 그러나 마르크스주의가 지배적이었던 이 시기에 베르다예프는 마르크스주의와 ‘정신적 투쟁’을 벌이면서 ‘내적 변혁’(внутренний переворот)을 향해 가고 있었다.¹³⁾ 베르다예프 자신에 의해 ‘정신적 위기’라 지칭하는 이 시기 그의 내적 전환, 변혁에 영향을 준 것은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입센의 작품들, 그리고 20세기 초 러시아 문화의 르네상스, 특히 러시아 상징주의였다. 이때 좌파 인텔리겐치아의 전통적 세계관인 ‘현세성’(посюсторонность)과의 결정적인 분열이 생기면서 베르다예프는 정신적인 여러 가치들과 아름다움의 우위를 찬양하게 된다. 후에 “인격과 사회 사이의 갈등의 날카로운 체험”¹⁴⁾이라 명명한 이 시기를 거쳐 추방 전에 집필되어 추방 중이었던 1901년에 나온 첫 저서 『사회 철학에서의 주관주의와 개인주의.

11) Н. Бердяев (2001), p. 156.

12) 단순히 만나는데 그친 게 아니라 때로 이들과 논쟁을 벌였다고 한다. 유물론적인 역사이해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에 형이상학적, 보편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즉 **전체주의적 마르크스주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베르다예프(“мой марксизм не был тоталитарным”)에 대해 플레하노프는 “이런 철학을 갖고선 마르크스주의자로 결코 남을 수 없다”고 했고, 루나차르스키는 혁명적 계급투쟁으로부터 독립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베르다예프에게서 “위험한 개인주의”(опасный индивидуализм)를 보았다(Н. Бердяев (2001), p. 167). А. 보그다노프는 베르다예프의 관념론, 형이상학에 대한 경향성을 정신 장애 시작의 징후로 보고 만날 때마다 환자를 대하듯이 질문을 했다고 한다(Н. Бердяев (2001), p. 174).

13) 니콜라스 А. 베르다예프(2015), 『노예냐 자유냐』, 이신 옮김, 늘봄: 서울, p. 8.

14) Н. Бердяев (2001), p. 170.

Н. К. 미하일롭스키에 대한 비판적 단평』(Субъективизм и индивидуализм в общественной философии. Критический этюд о Н. К. Михайловском)은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면서 이를 칸트와 피히테의 관념 철학과 접목하려는 시도였다. 이 저서의 본질이 진(истина), 선(добро), 미(красота)는 혁명적인 계급투쟁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 환경이 아닌 초월적인 의식(трансцендентальное сознание)에 의해 규정된다는 확신에 있다고 말하면서 베르다예프는 진리와 정의는 초월적 의식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계급적 진리’(классовая истина)는 허무맹랑한 단어 결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¹⁵⁾ 이때 지적해야 할 것은 당시 사람들이 베르다예프를 마르크스주의의 배반자, 개인주의자로 비판할 때 베르다예프는 자신이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좌파 사회주의자였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¹⁶⁾ 이는 베르다예프가 전 영역에서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우위나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만 사회주의를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르크스주의에서 관념론으로 전향하는 이 시기 베르다예프의 사상의 중심에서 있던 것은 개인의 해방, 사회에 대한 인격의 우위의 문제였다. 베르다예프는 인격을 압살하고 창조적 성취에 대한 인격의 권리를 부정하는 러시아 인텔리겐치아의 혁명적 금욕주의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였고, 불세비즘이 형성되기 오래 전부터 이미 러시아의 혁명적 인텔리겐치아의 ‘전체주의적’ 현상, 집단의 양심에 인격의 양심을 종속시키는 현상과 투쟁하였다.¹⁷⁾

마르크스주의에서 관념론으로의 베르다예프의 전향은 1902년, 열두 명의 저자들의 공저 『관념론의 문제들』(Проблемы идеализма)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이 논문모음집에서 필자들은 공통으로 19세기 중후반 이후부터 당대까지 러시아 사상계를 제패한 실증주의에 대한 반대항으

15) Н. Бердяев (2001), p. 166.

16) Н. Бердяев (2001), p. 172.

17) Н. Бердяев (2001), p. 172.

로서 관념론을 주장하였다. 이미 이들 전에 B. C. 솔로비요프나 B. H. 치체린이 실증주의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바 있었지만, 선행시도들과 구별되는 이 공저의 새로운 점은 인간 정신의 영원한 필요로서의 관념론이 사회정치적 삶의 전개 과정들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등장한다는 점, 그 결과 삶의 새로운 형식들은 “합목적성의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인격의 절대적인 가치를 그 중심에 놓는 윤리의 절대적인 명령”이 된다는 점이다.¹⁸⁾ 이 공저의 저자들 중 다섯 명은 1905년의 혁명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방향표지』(Вехи)에 참여하는데, 그중에는 베르다예프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이 ‘작은 혁명’(베르다예프가 1905년 혁명을 지칭하는 용어)에 대하여 베르다예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2.2. 러시아 혁명에 대한 베르다예프의 사유

1905년의 작은 혁명은 내게 고통이었다. 나는 혁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고 혁명을 반겼다. 그러나 혁명의 특징, 그 도덕적 결과들은 내게 반감을 갖게 했고, 나로부터 정신적 반작용을 불러일으켰다.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이 혁명 이후 러시아 인텔리겐치아의 역사에서 영웅적인 시기도 끝났다. 혁명적 인텔리겐치아의 전통적 세계관은 의식의 금욕주의적인 협소화, 도덕적 엄격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종교적 태도와 함께 붕괴되었고, 혁명이 야기한 환멸의 결과 인텔리겐치아와 반인텔리겐치아의 어떤 그룹에서는 진짜로 도덕적 붕괴가 시작되었다. 나는 어떤 정치적 혁명이든 완전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데, 왜냐하면 내가 깊이 확신하는 것은 대중의 혁명성이 아닌 인격의 진실한 혁명성이고, 나는 모든 혁명들 속에서 실현되는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폐지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나는 1917년 혁명이 일어나기 오래 전에 이 혁명은 자유와 인간성(гуманность)에 적대적이 될 것이라 썼다. 이는 러시아

18) П. Струбе 외(2009), *Манифесты русского идеализма*, М.: Астрель, p. 10.

의 역사적 운명의 비극성이다. 나는 정치에서 완전히 멀어져서 정신을 위한 투쟁에, 인텔리겐치아의 의식 변화를 위한 투쟁에 자신을 바쳤다.¹⁹⁾

인용한 베르다예프의 말처럼 1905년 혁명은 1907년 제2차 두마가 해산되고 스톨리핀의 반동정치가 시작되면서 실질적인 실패로 끝이 났다. 혁명 세력에 대한 스톨리핀의 탄압이 극심해지고 혁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쓰라린 패배감이 인텔리겐치아 사이에서 만연해가던 1909년 3월, 한때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로 1905년 혁명의 성취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7인의 지식인들이 『방향표지』라는 제목의 공저를 발간한다.²⁰⁾ 위의 인용에서 베르다예프는 대중의 혁명성(революционность массы)이 아닌 인격의 혁명성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자신의 투쟁은 정신(дух)을 위한 것, 그리고 인텔리겐치아의 의식 변혁을 위한 것이라 말한다. 베르다예프의 이러한 언급은 『방향표지』의 다른 저자들의 의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러시아 인텔리겐치아에 대한 논문 모음집”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에서 필자들은 1905년의 혁명을 이끈 혁명적/급진적 인텔리겐치아의 세계관과 그 정신적 기반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²¹⁾ 아울러 집필진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동체의 외적 형식보다는 정신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것, 즉 인격의 내적 삶만이 인간 존재에서 유일한 창조적 힘이고, 고로 사회 건설의 공고한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영역의 자족적 원칙이 아니라

19) Н. Бердяев (2001), pp. 181-182.

20) 7인의 지식인들은 베르다예프, С. 불가코프, М. 게르센존, А. 이즈고예프, Б. 키스 타콥스키, П. 스트루베, С. 프랑크이다.

21) 책의 서문에서 게르센존은 “1905-6년의 혁명과 그에 뒤따른 사건들은 우리의 사회 사상이 반세기 이상 가장 성스러운 것으로 지켜왔던 가치관을 전면적으로 의문에 부쳐볼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미하일 게르센존 외(1981), 『인텔리겐치야와 혁명』, 이인호·최선 옮김, 홍익사: 서울, p. 47.

바로 인격의 내적 삶이라는 것이다.²²⁾

『방향표지』를 여는 베르다예프의 논문 「철학적 진리와 인텔리겐치아의 진실」(Философская истина и интеллигентная правда)은 제목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철학자 베르다예프가 인텔리겐치아의 알팍한 ‘진실’을 철학적 ‘진리’와 병치시키면서 전자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베르다예프는 러시아의 혁명적/급진적 인텔리겐치아가 국민 전체의 생활로부터 부자연스럽게 유리된 서클들을 형성하면서 폐쇄적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을 광의의 전민족적, 보편적 역사 개념으로서의 인텔리겐치아와 구분하여 ‘인텔리гент시나’(интеллигентщина)라는 비하적 용어로 지칭하기도 한다.²³⁾ 베르다예프가 비판하는 것은 첫째로 이들이 철학에 대해 인민주의적, 공리주의적, 금욕주의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철학의 독자적 의미를 부정하고 철학을 공리적, 사회적 목적에 종속시킨 것이다. 인텔리겐치아에 대한 두 번째 비판은 이들을 탄생시킨 러시아 상황의 특수성(차르의 전제정치와 농노제)과 연관되는바, 평등적 정의, 사회의 이익과 민중의 복지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진리에 대한 사랑을 마비시켰고 그 결과 상황과 관계없이 절대적 가치를 지녀야만 하는 진리를 사회 변혁, 민중 복지, 인간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렸다는 점이다. 인텔리겐치아에게서 인간에 대한 사랑이 인간과 민중에 대한 우상숭배로 타락했음을 지적하면서 베르다예프는 참다운 인간에는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는 대심문관 식의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인간 속에서 아버지 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인간의 절대가치를 신과 진리에서 찾고 있는 베르다예프가 무신론적인 혁명적/급진적 인텔리겐치아에게 내리는 궁극적인 처방은 따라서 “지식과 신앙의 통합”(синтез

22) 미하일 게르센존 외(1981), p. 48.

23) 1946년의 저서 『러시아의 이념』(Русская идея)에서 베르다예프는 러시아의 인텔리겐치아는 러시아에만 존재하는 정신적, 사회적 형성물로 러시아적 특징인 ‘무토대성’(беспочвенность)을 갖는다고 말한다(Н. Бердяев (2001), p. 462).

знания и веры)이다.²⁴⁾

베르다예프의 글은 인텔리겐치아의 의식의 위기와 그로 인한 실수들을 그들의 철학에 대한 태도의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베르다예프는 인텔리겐치아에게 필요한 가치로 이론과 실제, 진실과 진리, 진실과 정의의 유기적 결합을 지적하는데 이 가치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바로 지식과 신앙의 통합이다. 그러나 이 통합 전에 지금 당장(1905년 혁명을 겪은 이후) 베르다예프가 인텔리겐치아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리의 독자적 가치에 대한 인정, 진리 앞에서의 겸손, 진리를 위해 단념할 준비이다. 주체와 그가 처한 상황을 초월하는 절대적 ‘진리’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혹은 진리가 철학 내에 존재하는가라는 반론의 질문을 여기서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듯하다. 이미 베르다예프는 철학을 “인간 정신의 자의식의 기관”(орган самосознания человеческого духа), “초개인적인 공동의”(сверх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и соборный) 기관으로 정의, 전제하고 있고 그의 철학적 진리는 종교적 진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인격, 자유, 창조, 세계 속 인간의 운명의 문제를 신과 연관지어 논의하는 베르다예프의 철학을 ‘종교적 실존주의’의 범주로 넣는 이유는 이런 맥락에서이다.

1905년 혁명에 대한 베르다예프의 견해는 혁명 자체를 향한다기보다는 혁명을 이끈 급진적 인텔리겐치아의 정신적 특질과 그들의 이상에 대한 해부, 비판에 주로 할애된다. 당시 혁명에 대한 베르다예프의 반동은 혁명 속에 내포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해방의 요소에 대한 반동이 아니라 혁명을 이끈 이들의 ‘정신적 기질’(духовный облик), 인간에 대한 혁명의 도덕적 결과들에 대한 반동인 것이다.²⁵⁾ 그러나 인텔리겐치아에 대한 그의 비판에서 우리는 여전히 인격의 절대적 가치에 대한 강조를 볼

24) 미하일 게르센존 외(1981), p. 75; Н. И. Канищева (Сост., автор вступ. ст. и коммент) (2010), *Вехи. Из глубины*, М.: РОССПЭН, p. 66.

25) 니콜라스 А. 베르다예프(2015), p. 9.

수 있고, 이와 함께 인격과 자유, 신과의 불가분의 관계가 나타난다. 베르다예프의 이런 기본 논조는 1917년의 볼셰비키 혁명에 대한 사유와 언급에서도 유지된다.

상술했다시피 러시아에서의 혁명을 베르다예프는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1917년의 혁명 역시 불가피한 것이었다. 베르다예프는 러시아 혁명의 사명이 창조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고, 혁명이 러시아 인텔리겐치아가 사로잡혀 있었던 것, 러시아 인민을 중독시켰던 거짓과 공허를 폭로했다고 평가한다. 10월 혁명이 일어난 직후인 1917년 11월에 집필된 글 「러시아에 혁명이란 것이 있었는가?」(Была ли в России революция?)의 제목은 반어적으로 ‘혁명은 없었다’라는 베르다예프의 견해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베르다예프는 왜 ‘진실한’ 혁명이 없었다고 생각했는가. 그에 의하면 혁명을 통해 인간 개인과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새로운 것이 태어나지도, 새로운 인간이 나타나지도 않았다. 즉 “창조적 새로움”(творческая новизна)이 부재하는 대신 옛 본능들, 노후한 감정들이 작동했을 뿐, 혁명이라는 마스크 아래 드러나는 민낯은 과거의 익숙한 민낯, 추함들이다.²⁶⁾ 썩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듯 부패한 옛 러시아가 추락한 것이지 러시아에는 그 어떤 혁명도 없었고 옛 러시아의 부패의 이 과정들을 “러시아 혁명의 발전과 심화”로 만들었을 뿐인 것이다. “모든 러시아 혁명은 자신의 무력함과 질병 때문에 꾸는 러시아 민족의 끔찍한 악몽이자 정신적 중심(духовный центр)을 상실한 나약한 민족의 혼란스런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영이다”라고 단언하면서 베르다예프가 이해하는 ‘진실한’ 혁명이란 새로운 것의 탄생, 새로운 창조, 인간의 영혼(душа) 속에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 외적인 새로움이 아닌 내적인 새로움, 내적 창조이다.²⁷⁾

26) Н. Бердяев (1990), *Духовные основы русской революции*, Н. Бердяев,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 4, Париж: YMCA-PRESS, pp. 103-104.

27) Н. Бердяев (1990), pp. 103-104.

1917년 혁명에 대한 반향으로 『방향표지』의 연장선상에서 집필된 공저 『심연으로부터』(Из глубины)는 혁명과 관련된 사건들이나 정치적 전술들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방향표지』와 유사하게 정치에서 인텔리겐치아가 지침으로 삼은 세계관의 원칙들 및 이념적 전제들, 정신적 지향들에 대한 분석이었다. 그러나 저자들이 단지 분석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방향표지』 저자들의 시선이 혁명적 인텔리겐치아의 죄와 그들의 그릇된 세계관에 향했다면 『심연으로부터』의 저자들은 혁명의 원인이 인텔리겐치아 뿐 아니라 종교적 뿌리로부터 분리되고, 그 결과 도덕적으로 타락한 ‘러시아 전체’에도 있다고 파악하고 러시아를 향해 종교로의 회귀를 강력하게 호소한다.²⁸⁾

1909년에 나온 『방향표지』는 호소와 ‘경계’였다. 이 경계는 그것이 불러일으킨 모든 격렬한 반응과 논쟁에도 불구하고 실상 1905-1907년에 이미 나타났고, 1917년에 폭발한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재앙에 대한 ‘약한’ 예감이자 러시아의 결함들에 대한 ‘소심한’ 진단에 불과했다. (...) 모든 필자들이 공통으로 갖는 확신은 사회 삶의 ‘긍정적인’ 근원들이 종교적 인식의 심연(глубина)에 뿌리박고 있고, 이 뿌리 깊은 관계의 결렬이 불행이자 죄라는 사실이다. 이런 결렬을 그들은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를 뒤흔 그 어떤 도덕적, 정치적 파멸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지각한다.²⁹⁾

28) 『심연으로부터』의 저자들은 따라서 구체제를 옹호한 보수주의자들이 아니었다. 예컨대 노브고룟체프는 구체제가 국민을 전제정, 정교, 민중성이라는 독단적이고 고립적인 이데올로기로 묶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프랑크는 반동주의자들이 급진주의자들처럼 사회적 삶의 정신적 측면을 무시하고 있고, 정치 형식과 정당들에 대한 낭만적인 이상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증오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29) С. А. Аскольдов 외(1990), *Из глубины: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о русской революции*, М.: Изд-во Моск. университета, p. 19.

『심연으로부터』의 저자들은 자신의 논문에서 러시아를 파멸로 이끈 혁명의 원인이 혁명적 인텔리겐치아 뿐 러시아 전체에도 있음을 지적한다. 즉 이제 그들의 관심은 인텔리겐치아의 정신에 대한 탐색에서 러시아의 비극적인 운명으로 이동한다. 이 파국은 여러 상황들이 운명적으로 합쳐진 결과인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불행한 역사적 사건인가? 혹은 역사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는가? 거듭 언급했듯이 베르다예프의 대답은 러시아 혁명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불가피함은 정치, 경제, 군사적 사건들 때문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국민정신의 역사적 과정의 결과로 인한 것이다. 『심연으로부터』에 실린 베르다예프의 논문 「러시아 혁명의 정신들」(Духи русской революции)에는 베르다예프의 이런 생각이 여실히 드러난다. 흥미로운 점은 베르다예프가 러시아의 위대한 세 작가들 — 고골,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 의 작품의 예술적 형상 속에서 1917년 혁명에서 승리한 사악한 정신이 이미 천재적으로 육화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에 의하면 러시아 혁명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 러시아 민중 속에 존재했던 것이 발현된 것이다.

기나긴 역사의 길이 혁명으로 이끌고, 혁명 속에는 민족의 특징들(национальные особенности)이 펼쳐진다. (...) 개별 민족은 자신만의 보수적 방식을 지니듯, 자신의 혁명적 방식 또한 지닌다. (...) 자신의 과거 속에 축적되었던 정신적 짐을 가지고 각각의 민족은 혁명을 만들어내고, 민족은 혁명 속으로 자신의 죄와 결함들을 갖고 들어오며 마찬가지로 희생과 열광도 가져온다. (...) 우리의 옛 민족의 병들과 죄들이 혁명으로 귀결되었고, 그 혁명의 특징을 결정했다. 비록 우리의 적들에 의해 우리의 파멸에 이용되었을지라도 러시아 혁명의 정신은 곧 러시아 정신이다. (...) 삶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혁명들은 본질적인 것을 바꾸거나 드러내지 못하고 단지 민족의 유기체 내에 숨어있는 질병들을 파헤쳐 보여주고 동일한 것들을 새롭게 재배치하며 새로운 옷들 안에 있는 옛 형상들을 보여줄 뿐이다.

혁명은 거의 항상 가면이고, 이 가면을 벗겨내면 익숙한 옛 얼굴을 만나게 된다.³⁰⁾

베르다예프는 혁명이 뭔가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에 배태되었던 기형과 질병이 혁명이라는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 혁명의 새 가면 속에 숨겨진 옛 러시아의 익숙한 얼굴들, 러시아 작가들에 의해 형상화된, 러시아를 오래전부터 갇아먹어 온 많은 허무주의적 악들 — 거짓과 배신의 악령, 평등의 악령, 파렴치의 악령, 부정의 악령, 비저항의 악령 — 중에 특히 흘레스타코프, 표트르 베르호벤스키, 스메르다코프로 형상화된 악을 예로 든다.³¹⁾ 베르다예프에 의하면 고골은 악을 가장 잘 묘사한 작가라면 톨스토이즘은 혁명에 도덕적 가치를 제공하였다. 이때 베르다예프가 가장 주목하는 작가는 도스토옙스키이다. 위대한 심리학자이자 형이상학자로서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 혁명 사상의 변증법을 그 심연까지 파헤치고 그로부터 최후의 결론 — 러시아 혁명이라는 것이 정치적,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이고 종교적 현상이라는 것, 러시아 혁명, 러시아 니힐리즘과 사회주의의 문제는 본질상 종교적인 문제로 이는 신과 불멸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 — 을 내렸고, 이 결론에 베르다예프는 전적으로 동의한다.³²⁾

30) C. A. Аскольдов 외(1990), pp. 55-56.

31) 각각 고골의 『검찰관』, 도스토옙스키의 『악령』,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등장하는 부정적 인물들이다. 톨스토이의 경우 작품의 인물들이 아닌 그 자신의 도덕적 가치들이 러시아 혁명에 영향을 주었다고 베르다예프는 지적한다. 베르다예프에 의하면 톨스토이의 도덕적 가르침들은 반사회적이고 고도로 개인적인데 그의 개인주의는 인간 개인의 본질적인 가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닐 뿐 더러 그의 니힐리즘적인 이념은 국가와 민족 정체성, 교회의 근간을 파괴한다.

32) C. A. Аскольдов 외(1990), pp. 63-65. 예컨대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의 이반의 말에서 사회주의와 종교와의 관계가 잘 드러난다. “러시아 소년들은 지금까지 어떤 짓을 해왔을까? (...) 예를 들어 이곳 악취가 풍기는 선술집을 보자고. 그들은 이전처럼 죽이 잘 맞아서 구석에 자리를 잡지. (...) 그들은 선술집에서 잠시 서로 사귀는 동안 어떤 토론을 벌일까? 신은 존재하는가, 불멸은 가능한가라는 세계적

베르다예프가 도스토옙스키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정치나 사회 삶의 창조나 조직에 무능하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혁명적 사회주의가 경제적, 정치적 가르침, 사회적 개혁의 체계”가 아니라 종교가 되길 요구하는, 기독교 신앙에 적대적인 신앙이기 때문이다.³³⁾ 사회주의라는 종교를 도스토옙스키의 대심문관의 말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모두가, 수백만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 우리는 그들을 일하게 만들지만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에 그들의 삶을 아이들의 노래, 합창, 소박한 춤을 곁들여 장난감처럼 조직한다.” 대심문관의 견해와 유사한 종교로서의 사회주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연민, 지상에서 사람들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인간의 자유로운 본성, 신과 유사한 본성을 거부하길 요구한다. 베르다예프에 의하면 도스토옙스키는 사회주의의 집단주의가 인간 개인 및 인간 속 신의 형상에 죽음을 가져오고 인간 정신의 자유에 종말을 가져오는 사이비 공동체주의(соборность), 사이비 교회임을 날카롭게 파악한 예언자였다.³⁴⁾ 논고의 마지막에서 베르다예프가 확신하는 것은 비록 러시아 민중이 심연으로 추락했지만 참회와 회개를 통해 부활의 가능성이 있음을, 다시 태어난 새로운 러시아가 혁명의 운동가들과 사상가들이 생각하는 그런 러시

인 문제겠지. 신을 믿지 않는 사회주의니 무신론이니 혹은 새로운 인물들에 의한 인류의 변혁 따위의 이야기를 꺼내지만 모두 한결같아. 단지 반대쪽 끝에서 시작했을 뿐 모두 똑같은 문제에 불과해. (...) 그렇지 않니?” 이에 대해서는 표도르 도스토옙스키(2009), 『카라마조프 씨네 형제들』 상, 이대우 옮김, 열린책들: 서울, p. 416을 참고하라.

한편 베르다예프가 도스토옙스키를 러시아 혁명의 선지자로 이해하기 전에 이미 D. 메레지콥스키는 이 위대한 작가가 러시아 삶의 세 근간(전제정, 정교, 민족성)을 파괴한 혁명적 악마주의의 폭발을 예언하였다고 말하였다(V. N. Porus (2017), “Nikolai Berdyaev on the “Spirits of the Russian Revolution”,” *Russian Studies in Philosophy*, vol. 55, nos. 3-4, p. 217).

33) C. A. Аскольдов 외(1990), p. 69.

34) C. A. Аскольдов 외(1990), p. 70.

아는 결코 아닐 거라는 것이다. 죄와 그 죄에 대한 심판, 고난과 참회를 통한 갱생과 부활이라는 종교적 관점을 통해 러시아 혁명을 바라보는 베르다예프의 시각은 향후 러시아의 부활이 악마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민중의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이념에 충실하게 남아있는 ‘소수’(меньшинство)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언급에서도 드러난다.³⁵⁾

러시아가 심연으로 떨어진 이유를 사회, 정치적인 어떤 외적 요인들에 서가 아닌 러시아 민족 내부에서 활동한 ‘러시아 혁명의 정신들’이라는 악한 정신의 활동에서 찾으면서 러시아 민족의 오랜 죄와 만성적 질병이 혁명으로 귀결되었고 러시아 혁명의 정신은 곧 러시아 정신의 발모라는 베르다예프의 견해는 러시아 민족 및 국가 정체성에 대한 논의와 직접 연결된다. 다른 민족 및 국가와 구별되는 러시아 민족, 러시아의 정체성의 문제, 세계사에서 러시아의 고유한 역할에 대한 논의들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러시아의 이념’(русская идея)의 문제는 차아다예프부터 시작하여 슬라브주의자들, 도스토옙스키, B. 솔로비요프를 거쳐 B. 로자노프를 비롯한 20세기 초중반의 러시아 철학자들을 사로잡은 테마이다. 생애 말기에 베르다예프 역시 『러시아의 이념』(부제: 19세기와 20세기 초 러시아 사상의 주요 문제들, 1946)에서 이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는 사실은 베르다예프의 사상 전개에의 수순에서 볼 때 이해 가능하다. 즉 현재 러시아, 러시아인과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베르다예프는 그나마 자신과 시간적으로 가장 가깝고 익숙한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의 러시아의 사상을 선택한다. 대략 1세기동안의 사상적 흐름, 러시아가 추구하는 바에 대한 고찰을 통해 러시아의 이념, 러시아‘만’의 이념이 존재함을 증명하면서 베르다예프가 결론으로 말하는 것은 러시아 민족은 그

35) Porus는 내면의 정신적 자유, 인격의 자유를 상실하지 않은 이 소수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민중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한다는 베르다예프의 견해에 대해 “정신의 귀족”, 삶 자체 보다 자유를 더 우위에 놓는 “자유의 기사”인 이 소수가 민중의 불신과 의심, 미움을 극복하여 임무를 성취할 수 있을까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V. N. Porus (2017), p. 221).

유형과 정신적 구조에 있어 종교적이어서 러시아의 무신론, 니힐리즘, 유물론조차 종교적 색채를 띠고, 러시아의 이념은 끝을 지향하는 종말론적인 사상(эсхатологическая идея)이며 이 종말론이 러시아 민족의 특성인 공동성(коммюнитарность)으로의 지향과 결합하여 러시아 민족의 종말론은 전인류의 구원을 그 형식으로 갖는다는 것이다.³⁶⁾ 그렇다면 베르다예프의 러시아의 이념의 측면에서 볼 때 러시아 혁명은 러시아 민족의 특성인 종교성, 공동성으로의 지향, 전 세계적 구원을 향한 열망이 왜곡되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혁명의 특징을 반정신성, 정신문화에 대한 적대성으로 파악하면서 베르다예프는 러시아 혁명, 그리고 그 이후의 공산주의에 반대하여 싸운 자신의 투쟁을 정치적 투쟁이 아닌 ‘정신적’ 투쟁이라 정의한다.³⁷⁾ 따라서 혁명 이후 반정신적인 소비에트의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베르다예프의 정신적 투쟁은 정신문화아카데미를 창립하여 의장으로서 이 회합을 이끌면서 사람들이 여러 문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사고하고 토론하게끔 도모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베르다예프는 이런 정신적인, ‘내적인 과정’속에서 공산주의가 변화, 갱생되고 ‘정신적 부활’을 통해 압제에서 해방될 것을 믿었으나, 그를 기다린 것은 ‘외적인 장애’였다. 체카와 게페우(국가정치총국)에 의해 두 번 체포되어 수감되었다가 결국 1922년 철학기선에 태워져 영원히 추방당한 베르다예프는 망명지에서도 러시아 혁명과 공산주의, 러시아의 운명 뿐 아니라 세계의 운명에 대해 썼다.³⁸⁾ 특히 베르다예프의 중요한 저서들 중 하나인 1933년

36) Н. Бердяев (2001), pp. 698-699.

37) 베르다예프에 의하면 혁명의 세계관은 정신의 존재와 정신적 적극성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신을 공산주의 체제 실현을 방해하는 것으로, 반혁명적인 것으로 간주한다(Н. Бердяев (2001), p. 299).

38) 체카에 체포되었을 때 베르다예프는 수많은 구금자들 중 유일하게 체카를 창설한 제르진스키에게 심문을 받았다고 한다. 제르진스키가 질문하기 전 베르다예프는 장장 45분에 걸쳐서 자신이 어떤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토대에 근거하여 공산주

의 저서 『러시아 공산주의의 기원과 의미』(Истоки и смысл русского коммунизма)에서 베르다예프는 러시아의 혁명과 공산주의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 혁명을 주도한 인텔리겐치아가 러시아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고찰하고 그들의 사상적 기반, 이념들을 살펴보면서 혁명과 공산주의를 러시아 민족정신 및 전통, 종교와 결부시킨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러시아 혁명에 대한 베르다예프의 사유는 러시아사, 러시아 민족의 차원을 넘어서게 된다. 베르다예프는 러시아 혁명과 그 이후 수립된 공산주의 체제의 전 세계적 파급력을 그 당시에 이미 깨닫고 있었다. 그는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위기일 뿐 아니라 휴머니즘의 위기”이고 “서유럽의 모든 역사는 코뮤니즘에 대한 불안에 의해 규정”된다고 이해하기에 이르렀고, 역사적 파국과 격변들은 그를 역사철학에 몰두하게끔 만들었다.³⁹⁾ 자신의 고유한 역사철학의 관점에서 러시아 혁명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러시아 공산주의의 기원과 의미』에서 잘 드러나는 바, 베르다예프는 여기서 혁명을 바라보는 세 견해를 언급한다. 첫 번째 견해는 혁명적 및 반혁명적 견해로 이 견해는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가/반대했던 사람들의 견해이다. 두 번째 견해는 혁명을 지적으로 관찰할 뿐 혁명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의 객관적, 역사적, 과학적 견해이다. 세 번째 견해는 종교적, 묵시록적, 역사철학적 견해(религиозно-апокалиптическая и историософическая точка зрения)로 이 견해는 혁명을 자신의 내부에서 받아들여 고통스럽게 체험하고, 혁명의 투쟁을 딛고 일어난 이들의 것이다. 베르다예프는 세 번째 견해인 역사철학이 혁명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때 지적해야 할 것은 베르다예프의 역사철학이 종교

의에 반대하는지 ‘강의’를 했다고 회상한다(Н. Бердяев (2001), p. 303). 추방 이후 소련에서 그의 책들은 금서가 되었으나 포스트 소비에트 시기, 최근 20년 동안 러시아와 유럽에서는 베르다예프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39) Н. Бердяев (2001), p. 291, p. 295. 공산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추방 전까지 5년 동안 지내면서 출판된 베르다예프의 저서들 중 『역사의 의미』(Смысл истории)는 그의 역사철학을 잘 보여준다.

적이고 묵시록적인 경향을 띠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적인 역사철학의 측면에서 베르다예프가 이해하는 혁명이란 역사 내부의 아포칼립시스, 즉 역사 자체의 내부에서 역사에 내려지는 심판의 계시이고, 러시아 혁명에는 다른 어떤 혁명보다도 이런 묵시록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베르다예프에 의하면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역사의 숙명으로서의 혁명은 그 스스로 악을 빚어내기 때문에 혁명 역시 죄악이다.

베르다예프의 역사철학 및 ‘러시아 이념’에서 본 러시아의 혁명은 이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러시아 혁명은 러시아 역사 과정의 독특한 성격 그리고 러시아 인텔리겐치아의 독자성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때 러시아의 볼셰비즘이나 공산주의는 러시아적인 것이 아니라 이국적인 것으로 이는 러시아 민족의 정체성 중 하나인 여성성에 의해 외래의 남성적인 것이 수용된 경우이다. 이미 거의 다 붕괴되어 가고 있었던 러시아 제국에 1차 대전은 치명타를 가하였는데, 전쟁이 볼셰비키에게 절호의 조건들을 만들어줌으로써 혁명은 가속화되었다. 볼셰비즘은 러시아 영혼(русская душа)의 특징들, 즉 그 종교성과 교조주의, 극단성, 사회적 진실 및 지상에 신의 왕국을 구하는 경향, 희생과 고통을 참아내는 능력, 야성과 잔인함, 잠재적인 메시아니즘, 러시아만의 특별한 길이 있다는 믿음, 민중과 교양있는 계층 간의 역사적 분리, 인텔리겐치아에 대한 민중의 불신 등을 이용했다. 또한 볼셰비키는 전일적이고 전체적인 세계관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이는 그 어떤 회의적 자유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러시아의 영혼에 합치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민중혼은 “하나의 전일적인 신앙에서 또 다른 전일적 신앙”으로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전체주의적 공산주의라는 또 다른 종교로 넘어갔다고 베르다예프는 결론짓는다.⁴⁰⁾

40) 니콜라이 베르자예프(1980), 『러시아 지성사』, 이경식 옮김, 서울: 종로서적, pp. 115-158.

3. 결론을 대신하여

1939년 망명지 파리에서 출판된, “인격주의 철학의 시도”라는 부제가 붙은 『인간의 노예성과 자유에 관하여』(О рабстве и свободе человека)의 서문에서 베르다예프는 자신의 철학의 근본이 ‘인격주의 철학’(философия персонализма)이고 진정한 철학은 항상 ‘투쟁’이라고 말한다.⁴¹⁾ 철학자 베르다예프는 ‘인격의 이름으로’ 인격에 적대적인 모든 것과 투쟁하였고, 투쟁의 대상에는 ‘평등’이란 대의하에 폭압적으로 평준화시킴으로서 인격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러시아 혁명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뿐 아니라 ‘자유’라는 기치하에 노동자들을 인격으로 존중하지 않고 물화시켜버리는 자본주의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베르다예프는 마르크스주의의 집단주의와 서구의 개인주의와의 대조 속에서 자신의 인격주의를 개진한다.

러시아 혁명을 비판하는 베르다예프 철학의 내적 추동력은 존재에 대한 자유의 우위, 자연에 대한 정신의 우위, 객체에 대한 주체의 우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에 대한 인격의 우위, 진화에 대한 창조의 우위로, 베르다예프는 개개인의 인격은 최상의 존재(신)의 형상을 그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목적의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단언한다. 또한 그 전체가 세계라 할지라도 인격은 어떤 전체의 부분이 될 수 없는데 이것이 인격의 본질적인 특징이자 비밀이다. 그러나 세계는 주체인 인간을 끊임없이 객체화하려고, 자신의 부분으로 만들려 한다. 따라서 인간은 그 정신을 노예화하려는, 인간을 개체화하려는 세계에 대항하여 정신의 자유를 지켜내야 한다. 인격과 자유는 뗄 수없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자유 의 신비는 곧 인격의 신비”나 마찬가지다.⁴²⁾

베르다예프에게 러시아 혁명은 ‘반인격적’이고 ‘반정신적’인 것으로

41) 니콜라스 A. 베르다예프(2015), pp. 5-6.

42) 니콜라스 A. 베르다예프(2015), p. 34.

그것은 항상 정신의 자유, 인격의 자유, 개인적 판단의 자유에 적대적이었다. 따라서 혁명 후 새로운 사회를 창조한다고 주창하는 러시아 혁명은 베르다예프가 보기에 새로운 인간의 창조로 귀결되는 진실한 혁명이 아니었다. 진실한 혁명, 아직까지 실현된 적이 없고 모든 혁명들 중 가장 급진적인, 가장 어려운 혁명은 “인격주의 혁명, 이러저러한 사회를 위한 혁명이 아닌 인간을 위한 혁명”(революция персоналистическая, революция во имя человека, а не во имя того или иного общества)이다.⁴³⁾ 러시아 혁명의 객관적 목적론이 인격과 자유를 억압하였다면, 베르다예프는 인격주의 혁명을 통해 인간 의식 구조에서의 변화, 객체화된 세계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43) 니콜라스 A. 베르다예프(2015), p. 256.

참고문헌

【자 료】

㉠ 한국어문헌

- 니콜라스 A. 베르다예프(2015), 『노예냐 자유냐』, 이신 옮김, 서울: 늘봄.
- 니콜라이 베르다예프(2008), 『현대 세계의 인간의 운명』, 조호연 옮김, 서울: 지만지.
- _____ (1981), 『거대한 그물』, 이경식 옮김, 서울: 종로서적.
- _____ (1980), 『러시아 지성사』, 이경식 옮김, 서울: 종로서적.
- N. 베르자예프(1990), 『하느님의 나라와 가이사의 나라』, 이경식 옮김, 서울: 종로서적.
- 스트루베 외(1981), 『인텔리겐찌야와 혁명』, 최선, 이인호 역, 서울: 홍익사.
- 도스토예프스키 표도르(2009), 『카라마조프 씨네 형제들』 상, 이대우 옮김, 열린책들: 서울.

㉡ 서양문헌

- Аскольдов С. А. 외(1990), *Из глубины: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о русской революции*, М.: Изд-во Моск. университета.
- Бердяев Н. (2001), *Самопознание. Русская идея*, М.: ЭКСМО, 2002.
- _____ (1990), *Духовные основы русской революции*, Н. Бердяев,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 4, Париж: YMCA-PRESS.
- Канишева Н. И. (Сост., автор вступ. ст. и коммент) (2010), *Вехи. Из глубины*, М.: РОССПЭН.
- Струбе П. 외(2009), *Манифесты русского идеализма*, М.: Астрель.

【논 저】

㉠ 한국어문헌

- 스미스 스티브(2007), 『러시아 혁명』, 류한수 옮김, 서울: 박종철 출판사.
- 조호연(2008), 「베르다예프의 기독교적 사회사상」, 『슬라브학보』, 23(4).
- 홉스봄 에릭(1997), 『20세기 극단의 역사』, 이용우 옮김, 서울: 까치.

㉔ 서양문헌

- Hughes A. Richard (2015), "Nikolai Berdyaev's Personalism," *International Journal of Orthodox Theology* 6:3.
- Kiseleva Marina S. (2015), "Understanding History: The Decisions of Nikolai Berdyaev," *Russian Studies in Philosophy*, vol. 53, no. 4.
- Porus V. N. (2017), "Nikolai Berdyaev on the "Spirits of the Russian Revolution","" *Russian Studies in Philosophy*, vol. 55, nos. 3-4.
- Zenkovsky V. V. (1967), *A History of Russian Philosoph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Кузнецова Ю. В. (2011), Историософия Н. А. Бердяева, *Вестник Ленинград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 А.С. Пушкина*, Философия.
- Мортрошилова Н. В. (2006), *Мыслители России и философия запада*, М.: Республика; Культурная революция, 2006.

원고 접수일: 2017년 10월 30일

심사 완료일: 2017년 11월 9일

게재 확정일: 2017년 11월 13일

Abstract

N. Berdyaev and Russian Revolution

Kim, Minn-ah*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e period just before and immediately following the Russian Revolution of 1917, brought with it a new renaissance in Russian literature, culture and philosophy. At the same time, however, this period was a time of social and political turmoil. N. A. Berdyaev, one of the most famous russian philosophers of the 20th century, lived in this time of catastrophe. For Berdyaev, who was once a Marxist and then became an enemy of Marxism and regime of Communism, the Russian revolutions of 1905 and 1917 were an important theme of his whole life as a philosopher. Berdyaev criticized that Russian revolution was hostile to freedom, personality and spirit.

* Lecturer, College of Language and Literature, Sangmyung University

